



함께하며 육아 부담 나누는 '사랑방'

가치육아 공동 육아

(4) 공동육아나눔터

지난 3일 제주시 중앙로에 자리한 제주시가족센터. 건물 2층에 들어서니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안내가 보였다.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지자 하나 둘 걸음이 이어졌다. 5월 '부모힐링타임'으로 준비된 '요가·필라테스' 첫날인 이날에는 10명 내외의 엄마들이 함께했다. 이곳에서 만난 장혜운(39) 씨는 평소 아이들과도 자주 찾는다고 했다. 제주 이주 3년 차이자 두 아이의 엄마 혜운 씨는 "SNS에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이자 공동육아를 위한 사랑방이다. 제주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센터점과 삼화LH점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 사진 1은 자녀돌봄품앗이 야외활동, 2는 제주시마당아리, 3은 오감놀이이다. 제주시가족센터 제공



제주도내 4곳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도 엄마가 강사로 나선 동아리 활동 눈길

나눔터서 싹트는 '돌봄품앗이' 현재 제주에는 공동육아나눔터 4곳이 운영 중이다. 제주시가족센터가 맡고 있는 센터점, 삼화LH점을 비롯해 제주시 구좌읍 동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서귀포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도 자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아이와 부모의 놀이공간이자 그 이름처럼 공동육아를 위한 사랑방이기도 하다. 센터점과 삼화LH점은 매일 같이 문을 연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장난감과 보드게임, 책 등이 준비돼 있다. 제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놀이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나눔터'라는 말처럼 돌봄과 정보, 자원을 나누는 곳을 향한다. 부모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이 서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활동이 '자녀돌봄품앗이'다.

자녀돌봄품앗이는 공통의 관심사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가족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모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딱딱한 업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단단히 뿌리내린다. 서로 도우며 육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박선영 제주시가족센터 건강가정사업팀장은 "자녀돌봄품앗이를 신청하면 공통점이 있는 분들과 매칭해 드리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육아 공동체를 구성해 신청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센터에선 공동체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아이와 부모 위한 프로그램도 공동육아나눔터에선 놀이, 힐링, 학습,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부모와 아이가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달 센터점에선 부모힐링타임 '요가·필라테스' 외에도 가정의 달 맞아 '소풍 도시락 만들기', '페이퍼 카네이션 용돈상자·화분 만들기' 등이 준비됐다. 엄마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제주엄마동아리'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고 있다. 박선영 팀장은 "여러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거나 재능이 있어도 발휘하지 못했던 엄마들이 강사로 나서고 있다"면서 "제주엄마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진행하면서 취·창업에 대한 예행연습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로 모인 가족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가족문화축제'에도 함께한다. 이날 김지은기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 탐담공연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선 자녀돌봄품앗이 가족이 참여하는 플라마켓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제주시가족센터의 센터점과 삼화LH점은 주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토요일에는 오후 5시, 일요일에는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동계주종합사회복지관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복지관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낮 12시~오후 1시 점심 시간 제외) 열려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 2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일(오전 9시~오후 6시, 낮 12시~오후 1시 제외)에만 운영한다. 도내 다섯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는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문을 열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마다 이용 방법과 시간, 휴관일 등이 다르다.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 김지은기자

영화觀

뜨거운 안녕

우주를 지키던 친구들이 이별을 고하러 왔다. 마블의 화려하고 근사한 영웅들 중에서 유독 허술하고 엉뚱한 아웃사이더들이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가 3편으로 울퉁불퉁하고 울렁울렁 대던 그들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3'

언제부터인가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마블의 인기도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친구들이 심장을 꺼냈다. 우리가 사랑했던 마블의 모든 것, 변치 않는 우정, 피어나는 사랑, 가상의 용기 그리고 마블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슴 뭉클한 영웅담까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3'은 놀라울 정도로 근사한 포장 안에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정성스러운 손 편지가 담긴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3'은 인간이 아닌 주인공, '로켓'이 서사의 마지막을 열고 닫는다. 모두가 이상하고 특별한 가디언즈 중에서도 말하는 너구리 '로켓'은 단순히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가 아님을 제임스 건 감독은 힘주어 말한다. 비틀어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통해 재탄생된 로켓의 가슴 아픈 서사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3'의 러닝 타임을 가득 채운다. 영화의 시작점에서 로켓은 라디오헤드의 유명한 곡 'creep'을 부르며 등장한다. 고개를 떨구고 세상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라고 낙담한다. 나는 흥하고 못났다고, 여기와 맞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그가 가진 트라우마는 너무나 강력하고 끔찍해서 관객들을 여러 차례 울린다. 그리고 2시간 반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의 상처와 낙담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로켓의 과거와 현재의 친구들을 통해 지적처럼

치유되고 해결되는 감동의 여정을 선사한다. 이 영화는 작정하고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블랙버스터인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내 친구와 내 친구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던지는 것에 아낌없이 돌진하는 영화다. 이 정직하고 투명한 메시지들을 영화는 내내 로켓처럼 관객들에게 발사한다. 자칫 교훈적인 투가 될 수도 있었고 교조적인 뉘앙스로 비칠 가능성도 있었지만 영화는 웃음과 눈물이라는 대중 영화의 가장 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배합을 영리하게 해낸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3'은 복잡하지 않다. 시리즈의 1, 2편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콘셉트다. 사랑과 우정, 눈물과 감동이 있고 짜릿한 액션과 휘황찬란한 볼거리도 낙낙하다. 쉽지 않은 단순하지 않고 길지만 늘어지지 않는 데다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수많은 질문들과 급세 사라지지 않은 감정의 잔상들을 남기는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끝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토록 뜨거운 포옹이라면, 이렇게 근사한 안녕이라면 이 이별을 아주 기쁘고 예쁘게 기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가치육아 한라일보의 '가치육아'는 같이 묻고 함께 고민하며 육아의 가치를 더하는 코너입니다. 부모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관련 정보를 담은 '공동육아'와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팀 센터장이 육아 멘토로 나서서 '이럴 땐'을 2주에 한 번씩 연재합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육아 이야기나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한라일보 가치육아 담당자 이메일(jieun@ihalla.com)로 보내주세요.

축 임
CONGRATULATIONS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장



손영준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손영준 자문위원님께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장에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임재현 의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장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장에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지회
지회장 오형범 의원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김병수
(배우자: 김오순)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정부(대통령) 표창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하시는 큰아버지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조카 일동
조카: 김경환·이규진, 김경률·강서영, 김미정·고정찬, 김효정·현호철

축 격
CONGRATULATIONS

건축사 시험



이진용
(부: 이흥기 · 모: 강영실)

23년 제1회 건축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형초등학교 제15회 동창 일동